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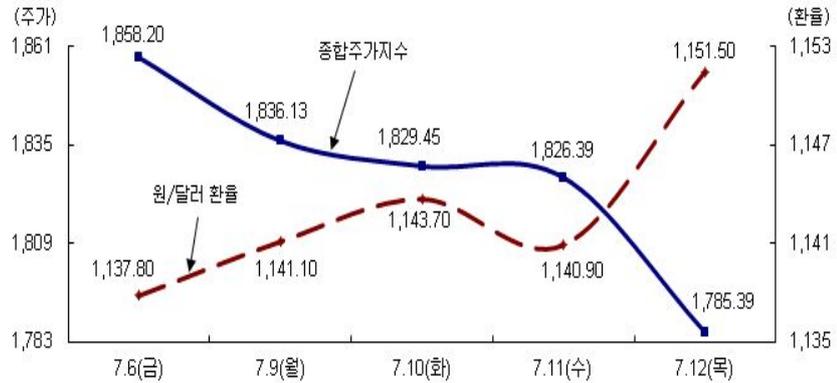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의 착시 현상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7.6~7.1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의 착시 현상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6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집필 : 최 성 근 선임 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 Executive Summary

### □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의 착시 현상

#### ■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지속

2012년 상반기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이상 흑자를 지속하고 있다. 2012년 상반기(6월 잠정치 기준)에 수출은 2,754억달러, 수입은 2,646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7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수출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 ■ 무역수지 착시 현상

최근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무역 흑자는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다.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부품 포함) 제외시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이상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무역수지를 살펴보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한-미, 한-EU FTA효과로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자동차(부품 포함)의 흑자를 제외하면 전체 무역수지는 1/4분기 -146억달러, 2/4분기 -63억달러로 상반기에 총 209억달러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역수지 흑자는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홍콩 포함)을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이상 적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對중 무역수지는 상반기에 185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약 10억달러 증가했고, 對홍콩 무역수지는 13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17억달러 증가했다. 이러한 중국(홍콩 포함)에서의 흑자를 제외하면 2012년 상반기(1~5월) 무역수지는 약 259억달러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시사점과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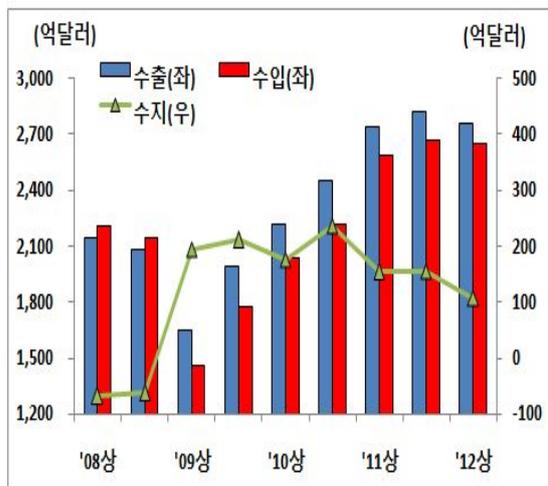
품목별, 지역별 무역수지 편중이 심한 불안정한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외 여건 악화 지속시 주요 품목들의 무역수지 악화가 전체 무역수지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첫째,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기존의 10대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하여 수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는 한편 차세대 주력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여 기존의 주력 품목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수출 및 수입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국가와 지역을 통한 신수출 시장 개척해야 한다.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입시장 다변화를 통해 무역수지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해야 한다. **셋째, 수출 실적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단순히 수출입 실적이나 무역수지만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와 같이 자동차 등 일부 품목 호조에 편중된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한 지표들까지 모니터링함으로써 정확한 수출 경기 판단과 올바른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 1.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 지속

○ (현황) 2012년 상반기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는 100억달러 이상 흑자를 지속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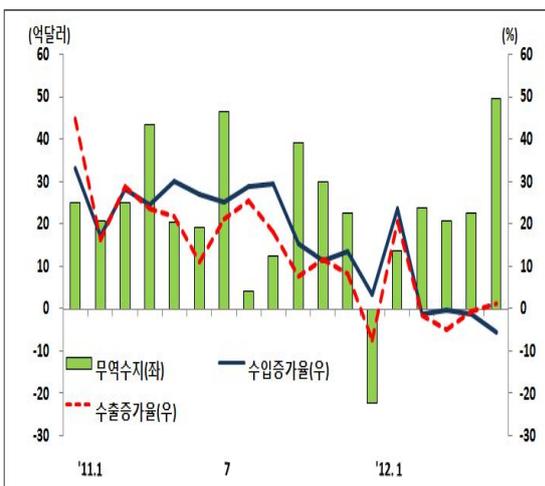
- 무역수지 흑자 :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증가율이 크게 하락했으나 무역수지는 꾸준히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 상반기(6월 잠정치 기준) 수출은 2,754억달러, 수입은 2,646억달러로 무역수지는 107억달러 흑자를 기록
  - 무역수지는 2010년 하반기 이후 높은 수입의 증가세 등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반기별로 100억달러 이상 흑자를 유지
- 불황형 흑자 : 수출입 증가율이 동시에 하락하는 가운데 무역수지는 흑자를 유지하는 “불황형 흑자”의 양상을 나타냄
  - 2012년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0.7%에 불과(2011년 상반기 23.6%). 수입증가율도 감소세를 보여 상반기 2.5%증가에 그침(2011년 상반기 26.7%)
  - 그러나 2012년 6월 무역수지(잠정치 기준)는 50억달러로 2010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여건의 악화로 수출과 수입 증가율이 둔화된 가운데 흑자가 유지되는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 시현

< 반기별 수출입 실적 및 무역수지 >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 월별 수출입 증가율 및 무역수지 >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 2. 무역수지 착시 현상<sup>1)</sup>

○ (품목별 착시) 무역수지 흑자가 일부 품목에 한정되고 있으며, 최근 호조를 보이고 있는 자동차(부품 포함) 제외시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이상 적자

- 품목별 무역수지 : 2009년 이후 자동차와 부품의 무역수지가 크게 증가
  -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은 제품의 경쟁력 강화 및 한-미, 한-EU FTA효과로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흑자가 증가하는 추세
  - 반면 선박 수출이 유럽 재정위기의 영향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최근 크게 축소.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품목들의 수지가 둔화되면서 무역수지 흑자도 감소세
- 주요 품목의 수출<sup>2)</sup> : 2012년 대외여건 악화로 전반적인 수출증가율이 하락한 가운데 자동차(부품 포함)는 가장 높은 증가율 유지
  - 자동차(부품 포함)의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16.5%로 주요 품목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반면 선박의 경우 상반기 수출증가율이 -23.8%,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IT 제품의 수출증가율은 -10.4%로 크게 하락

< 주요 품목별 무역수지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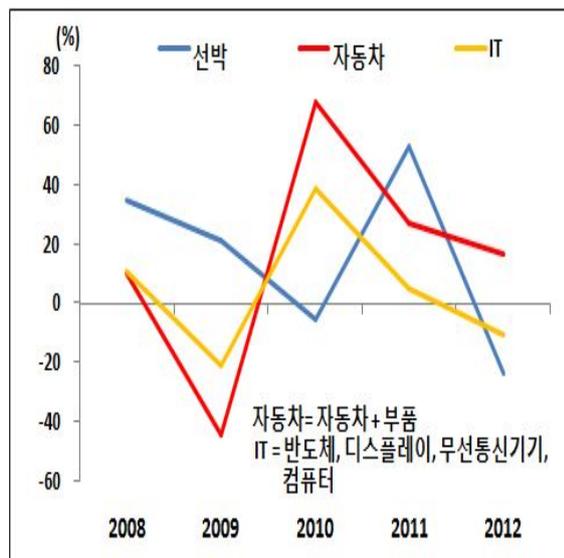
(단위 : 억달러)

품목	무역수지					
	2008	2009	2010	2011	2012	
자동차	자동차	143	79	122	154	186
	자동차부품	43	27	53	67	80
		187	106	175	221	266
선박	137	172	165	261	193	
IT	반도체	4	-4	74	72	71
	디스플레이	60	69	108	104	102
	무선통신	129	111	86	90	62
	컴퓨터	8	-1	-5	-11	-7
총수지	201	175	263	255	228	
총수지	-63	129	107	134	58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 주 : 1) MTI 3단위 기준
- 2) 각 연도별 5월까지 자료 기준.

< 주요 품목의 수출증가율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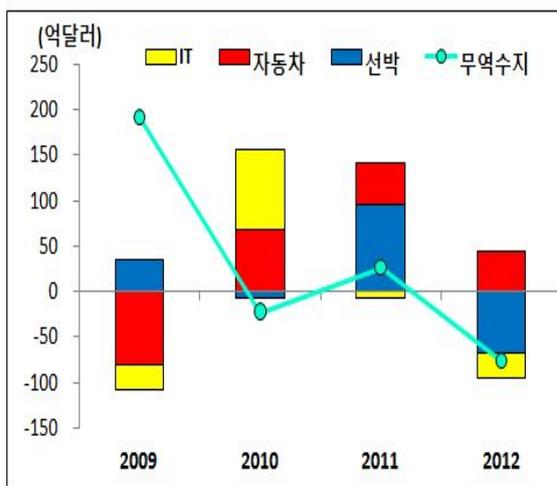
자료 : 무역협회.

주 : 각 연도별 5월까지 자료 기준.

- 1) 무역수지는 6월까지, 품목별·국가별 무역수지는 현재 5월까지 자료만 발표되었으므로 1~5월까지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음
- 2) 전체 수출 품목 219개(MTI-3단위 기준)중 2012년 현재 수출 상위 10대 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0%임

- **무역수지 증감 추이** : 2012년 상반기 자동차(부품) 무역수지는 다른 품목에 비해 전년동기대비 흑자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자동차 부문은 대외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제품 경쟁력 향상과 FTA 등의 효과에 힘입어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기대비(1~5월) 45억달러 증가
  - 반면 선박의 경우 2012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무역수지 흑자가 68억달러 감소했고, IT의 경우 전년동기대비 27억달러 감소
- **착시 효과** : 한-EU, 한-미 FTA 발효 등에 따른 자동차의 수출 호조 효과를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2011년 상반기에 200억달러 이상 적자를 나타냄
  - 2012년 1/4분기와 2/4분기(4~5월) 무역수지는 14.5억달러, 43.3억달러로 총 57.8억달러 흑자.
  - 한편, 자동차(부품 포함)의 흑자는 1/4분기 160억달러, 2/4분기 106억달러이며 상반기 총 266억달러로 전체 무역수지 흑자를 크게 초과
  - 이러한 자동차(부품 포함)의 흑자를 제외하면 전체 무역수지는 1/4분기 -146억달러, 2/4분기 -63억달러로 상반기에 총 209억달러 적자를 기록
  - 2012년 상반기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자동차 부문을 제외한 다른 부문의 무역 흑자 감소 또는 적자가 심각한 상황

<주요 품목별 무역수지 흑자 증감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주 : 1) 각 연도별 5월까지 자료 기준  
 2) 무역수지 증감은 전년동기대비

<자동차 부문 제외시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주 : 각 분기별 5월 자료 기준.

○ (국가별 착시) 무역수지 흑자가 일부 국가에 집중되고 있으며, 중국(홍콩 포함)을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200억달러 이상 적자

- 지역별 무역수지 : 對선진국 무역수지는 적자, 對개도국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
  - 對선진국 상반기(1~5월) 무역수지는 -185억달러 적자로 전년동기대비 약 21억달러 적자 증가
  - 對개도국 상반기(1~5월) 무역수지는 244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55억달러 흑자 감소
- 국가별 편중 심화 : 중국(홍콩 포함)에서의 무역수지는 상대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제외할 경우 무역수지는 약 259억달러 적자
  - 對중 무역수지도 상반기 185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약 10억달러 증가. 對홍콩 무역수지는 상반기에 131억달러 흑자로 전년동기대비 17억달러 증가
  - 중국과 홍콩에서의 흑자를 제외하면 2012년 상반기(5월 기준) 무역수지는 약 259억달러 적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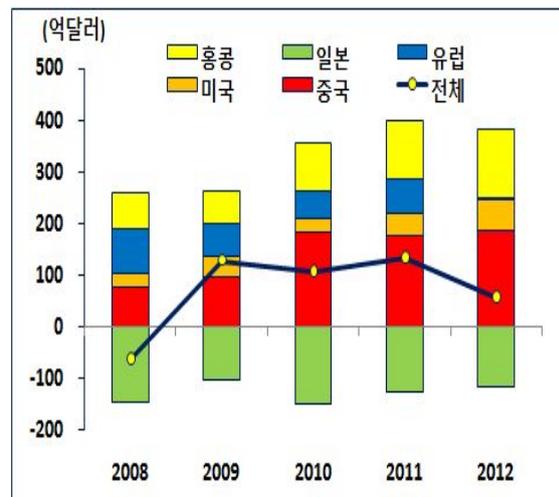
< 지역별 무역수지 현황 >

(단위 : 억달러)

연도	지역별 무역수지		전체
	선진국	개도국	
2008	-137.4	74.0	-63.4
2009	-92.1	220.9	128.7
2010	-174.3	281.8	107.4
2011	-164.3	298.0	134.3
2012	-185.2	243.8	57.8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주 : 각 연도별 5월까지 자료 기준

< 주요국 무역수지 추이 >



자료 :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주 : 각 연도별 5월까지 자료 기준.

### 3. 시사점과 과제

- (시사점) 품목별, 지역별 무역수지 편중이 심한 불안정한 무역구조를 지니고 있어 대외 여건 악화시 주요 품목들의 무역수지 악화가 전체 무역수지 악화로 귀결될 우려
  - 흑자를 선도하는 자동차 부문이나 중국의 경기 둔화시 무역수지 흑자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대외여건 변화에 취약한 무역구조의 개선이 절실함
- (과제) 주요 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 육성, 수입 시장 다변화, 객관적인 수출입 모니터링이 필요함
  - 첫째, 기존의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 제고와 더불어 새로운 수출 주력 품목을 육성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
    - 기존의 10대 수출 주력 품목의 경쟁력을 더욱 향상하여 수출 시장의 점유율을 확대하고 중남미, 아프리카 등 신시장으로 진출 확대
    - 수출 주력 품목 이외에 차세대 주력 품목을 선정, 정책적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집중 육성하여 향후 기존의 주력 품목들의 경쟁력 약화에 대비
  - 둘째, 수출 및 수입 시장 다변화를 통한 무역수지 개선을 추진
    - 선진국에 대한 무역수지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 경기 둔화 속 경기가 호조를 보이는 국가와 지역을 통한 신수출 시장 개척
    - 원자재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들의 수입시장 다변화를 통해 무역수지를 전략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
    - FTA를 적극 활용하여 기존 수입품들의 수입선을 FTA 체결국으로 전환하여 수입가격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
  - 셋째, 수출 실적에 대한 다양하고 객관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 단순히 수출입 실적이나 무역수지만으로 판단할 경우 현재와 같이 자동차 등 일부 품목 호조에 편중된 착시 현상에 빠질 수 있음
    - 따라서 착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한 지표들까지 모니터링 함으로써 정확한 수출 경기 판단과 올바른 무역수지 개선 대책 수립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 (csk01@hri.co.kr, 2072-6223)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E)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1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2	-0.3	-0.3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0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8.2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4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7월 6일	7월 1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56	1.48	-0.08%p
	엔/달러	81.19	80.66	77.66	79.91	79.65	-0.26¥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388	1.2245	-0.0143\$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772	12,573	-199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9,021	8,720	-301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3.23	2.97	-0.26%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137.8	1,151.5	13.7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858.2	1,785.4	-72.8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7월 6일	7월 1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4.33	85.97	1.64\$
	Dubai	88.80	106.75	104.89	97.96	97.04	-0.92\$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86.92	290.27	3.35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F)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6.3	3.8	3.4	3.6	2.9	3.9	3.5
	민간소비 (%)	4.4	2.9	1.6	2.3	1.7	3.3	2.5
	건설투자 (%)	-3.7	-7.1	-3.0	-5.0	1.9	2.4	2.1
	설비투자 (%)	25.7	8.9	-1.1	3.7	6.0	6.7	6.3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294	81	184	265	55	75	130
	무역수지 (억 달러)	412	153	155	308	80	116	196
	수출 (억 달러)	4,664	2,736	2,816	5,552	2,752	3,047	5,799
	(증가율, %)	28.3	23.6	14.9	19.0	0.6	8.2	4.5
	수입 (억 달러)	4,252	2,582	2,662	5,244	2,672	2,931	5,603
	(증가율, %)	31.6	26.7	20.2	23.3	3.5	10.1	6.9
소비자물가 (평균, %)		3.0	3.9	4.1	4.0	2.8	3.0	2.9
실업률 (평균, %)		3.7	3.8	3.0	3.4	3.5	3.1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56	1,102	1,114	1,108	1,140	1,110	1,12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